

9월의 기도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시편 41장 12절>



1.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낙엽 색깔로 채색되듯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 안에서 채색되어 주님의 인도 따라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 제2주기 추모예배를 15일 순복음런던교회에서 진행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는 삼중 축복의 은혜를 받고 세계 선교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DCEM되게 하옵소서. 특히 4차원의 영성으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꿈을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 세상을 바꾸도록 만드는 귀한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DCEM되게 하시옵소서.

3. 태풍으로 희생과 수해를 당한 국민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소서. 전통 추석 명절에 고향이나 가족 상봉, 이동하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족 간의 예배와 모임으로 화합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 품에서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4.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빛나게 하는 선교사들의 사명을 강화시키고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신체적, 영적인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오주봉,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썩지 않는 씨

너희가 거둬낸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23)

식물은 씨에서 자라납니다. 씨가 땅에 심겨진 후, 따뜻한 햇볕을 받고 물기가 스며들면 씨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서 싹이 트고 줄기가 뻗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의 마음 밭에 심어질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씨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맵니다. 모든 씨앗이 그 속에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 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뱀의 꾀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죄는 인류에게 영적인 죽음뿐 아니라 죄와 저주와 질병과 육신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구속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한 몸에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거둬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항상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썩지 않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여 구원을 얻고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야 할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Sept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2002년 해외성회

<온두라스 · 엘살바도르 성회>



① 온두라스 국립경기장의 밤하늘을 가득 메운 함성은 그칠 줄을 몰랐다. ② 강설교자 조용기 목사, 통역자 데이비드 스펜서 목사 ③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는 군인 ④ 엘살바도르 엘림교회에서 설교하는 조용기 목사

마야문명의 근원지,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인접해 있는 두 나라는 16세기 당시 멕시코를 정복하고 중앙아메리카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던 스페인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스페인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중앙아메리카 연방 공화국을 구성했으나 1838년 연방이 해체되면서 양국은 별개 국가로 각각 독립했다. 양국은 이주민 문제나 토지 배분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었고 내전과 독재, 쿠데타 등으로 얼룩진 근현대사를 겪어왔다. 군정부와 갱단들 간의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었던 2000년대 당시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과 국립경기장과 엘살바도르의 엘림교회에서 '희망의 예수'를 전하는 조용기 목사 초청 중미 대성회가 개최되었다. 당월호에서는 2002년 11월 각각 개최된 중미 대성회를 회고해보고자 한다.

2002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온두라스 기독교 연합회 주최 DCEM 주관으로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에서 열린 온두라스성회는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온두라스 국민들에게 오중복음을 통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삼중

축복을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성회에 앞선 지난 14일 콜로세움 체육관에서는 교역자세미나가 마련됐고 2천여 명의 교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기 목사는 강력한 꿈과 믿음에 대해 역설하며, “희망을 품게 되면, 꿈을 가질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며 “교회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15, 16 양일간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된 대성회에도 연일 수많은 인파가 성회장을 찾아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한편 이보다 앞서 13일 온두라스를 방문한 조용기 목사는 현지 언론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성회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극빈층인 온두라스에서 개최된 조용기 목사 초청 대성회는 희망도 없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온두라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중남미 복음화를 위한 조용기 목사의 행보가 가속되었다. 조용기 목사는 온두라스에서 엘살바도르로 이동해 수도인 산살바도르에 위치한 엘림교회(담임 마리오 베

가 목사)에서 교회성장세미나를 개최했다. 19, 20 양일간 개최된 교회성장세미나에는 엘살바도르 전역과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프에르토리코,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에서 수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리고 김옥주 엘살바도르 대사도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 시작 5시간 전부터 엘림교회는 참석자들이 가득 찼으며, 이들이 뿜어내는 성령의 열기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연상케 했다.

조용기 목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룩했던 교회성장에 대해 증거했다. 특히 조용기 목사는 셀 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조용기 목사는 특히 목회자들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물론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목회할 것을 당부했다.

조용기 목사 초청 중남미대성회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중남미 지역 국민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는 성령님과 함께 성공적인 목회를 이룩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나의 삶을 바꾸려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략)...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15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 은혜로써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저 말은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놓으면 성령께서 그 생각 위에 역사하셔서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먼저 꿈을 가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감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입술의 말로 창조적인 선언을 할 때 운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로 6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소리 내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말로써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힘을 주면 우리는 굉장한 큰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받아들이고 꿈꾸고 소리 내어 말하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소망 찬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말을 하십시오. 4차원의 영성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살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3차원의 물질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삶에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 성령과 4차원의 영성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 삶에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방법은 바로 4차원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우리 영은 생각, 꿈, 믿음 그리고 입술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3차원의 물질세계를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3차원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여기 저기 헤맬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4차원적인 해결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확실히 인정하고 4차원의 영성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어느 날 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대화하는 중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을 집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1. 죄로 인한 아담의 변화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자 그 영이 죽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애를 써도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산의 신학과 목회

- 바라봄의 법칙 -

4차원의 영적세계에서 바라봄의 법칙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현실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계를 보여주신다. 미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많은 별들의 수처럼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며, 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것처럼 많은 자손들을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그리게 하셨다. 이처럼, 바라봄의 법칙은 초시공의 영역에서 현실을 초월하는 꿈의 법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미래의 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사업가들도 미래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향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우리가 현실적인 면만 바라볼 때 앞을 내다보는 시각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있으면 현실의 역경을 극복하고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기독교 영성훈련에서도 바라봄의 법칙은 중요한 영적법칙이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그들의 수련생활에서 마귀와의 영적전쟁을 끊임없이 하였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한다. 만약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의 잡으면 마귀는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불행한 모습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안감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마귀가 부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훈련에서는 이러한 마귀와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적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

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요 1:1) 말씀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며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다. 수많은 영성훈련 방법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말씀훈련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긍정적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믿는 것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미래의 사건들을 우리의 현실에 실현할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잘되고 범사는 형통

하며 육체는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셋째,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라고 말씀하고 있다. 꿈은 믿음을 통해서 현재에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가 꿈의 구체적 형태를 빌어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 바라보는 것이다.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미래가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을 바라보면 축복의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4차원의 영성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믿는 바라봄의 법칙이며 또한 꿈꾸는 법칙이다.

2024년도 삿포로신학교 신학생 모집 [2년제]

일본 선교의 최전선에서 헌신할 제3기 신학생을 모집합니다. 졸업후 각자의 적성과 진로희망에 따라 일본 선교를 이끌 지도자, 교회 개척자로 활약할 길이 제공됩니다. 일본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일본 선교를 향한 강한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자
- 일본어능력시험 N4레벨 이상 자격 소지자 및 입학 전 동 레벨을 취득할 의지가 있는 자
-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 일본국민, 일본거주 외국인도 응시가능
* 연령제한 : 45세 이하

■ 접수마감
2023년 8월 31일(목)

■ 입학문의
SAPPORO BIBLE COLLEGE에 관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02-6181-6572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국)
Tel. 02-6181-5061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 전형방법

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대면 또는 화상면접

*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조 (sapporobible.college.kr)

■ 입학 전형비 및 수수료

- 입학전형비 : 5천엔
- 등록금 : 180만엔/년 (기숙사, 식사비 일체 포함)

*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선발, 추천하여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급 됩니다.

삿포로 신학교
SAPPORO BIBLE COLLEGE
17 Chome-3-11, Minami 8 Jonishi, Chuo-ku, Sapporo, Hokkaido, JAPAN